

올여름 최고의 선택, 롯데워터파크

올해도 어김없이 찌는듯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롯데워터파크(대표 박동기)가 본격적인 여름 사냥에 나선다. 롯데워터파크의 상징인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파도 풀 존 '자이언트 웨이브' 앞에 서면 폴리네시아의 어느 외딴 섬으로 휴양을 떠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파크 전역에 위치한 43개의 스틸 넘치는 풀과 라이드를 즐기려면 하루가 모자라는 느낌이다.

눈 뜨면 펼쳐지는 폴리네시아 풍경...무더위를 잊게 할 다양한 풀과 라이드

롯데워터파크 야외 파도 풀 존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주하는 폭 120m, 길이 135m의 롯데워터파크의 상징, '자이언트 웨이브'가 압도적인 규모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자이언트 웨이브' 뒤로 펼쳐진 '자이언트 볼케이노'에서부터 2.4m의 높이로 밀려오는 파도는 무더위를 휩쓸어 간다. 또 38m 높이 '자이언트 볼케이노'에서는 용암이 분출되는 '볼케이노 쇼'를 지난 6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파도 풀에서만 머물 시간은 없다.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곳곳에 널려 있다.

먼저 국내 워터파크 최초로 도입된 '래프드리버'를 추천한다. 실제 계곡처럼 구성된 370m의 경사 수로를 따라 래프팅 보트를 타고 급류를 즐기는 시설이다. 물살이 급격히 빨라지는 구간, 경사진 협로를 통과하는 구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돼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또 다른 쾌감을 느낄 수 있는 '토렌트리버'의 최대 1.2m에 달하는 강한 파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살을 온몸으로 즐기다 보면 어느새 무더위는 사라진다. 높이 21m, 길이 170m에 달하는 부메랑 형태 슬라이드를 6인승 튜브를 타고 급하강과 상승을 반복하는 '자이언트

부메랑고'와 구불구불한 수로를 따라 급류타기의 박진감이 온몸을 덮치는 '래프팅슬라이드'도 필수 체험 라이드다.

신나는 댄스공연부터 댄스경연대회, 정통 삼바 공연까지

롯데워터파크에는 풀과 라이드 시설 외에도 지루함을 날려줄 전문 댄스 공연 'Summer Time 페스티벌'이 8월 18일(일)까지 '하와이안 스테이지'에서 펼쳐진다(화요일 제외). 댄스 경연대회 '파이널 넘버 원'도 열린다. 예선전을 통과한 상위 10개팀은 8월 3일(토) 본선 무대에 오르며, 최종 4개팀에는 상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브라질에서 온 롯데월드 어드벤처 삼바 댄서들의 정통 삼바 공연 '삼바 투게더 쇼'도 8월 10일(토)과 17일(토)에 열린다.

입장부터 퇴장까지 스마트하게 즐긴다.

롯데워터파크를 더욱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롯데워터파크 모바일 앱을 통해 티켓을 사전 예매해 발권하면 티켓 매표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입장이 가능하다. 앱을 연계한 다양한 할인프로모션도 매달 진행하며 알뜰한 나들이도 지원하고 있다. 170여개의 카바나와 10여개의 캠핑존도 입장 7일 전부터 사전 예매가 가능하니 효율적인 물놀이를 계획할 수 있다. 올여름 롯데워터파크에서 진행되는 이벤트, 공연 및 우대 등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❶

